



제52회 예비군의 날 기념 축전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예비군 창설 5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벌써 화사한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보건·경제위기가 몇 달째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자연은 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듯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세계의
모범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능동적 대응과 의료인력의 헌신이
주효했지만, 무엇보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
자유방위의 역군, 예비군이 쌓아온 대한민국의 기초체력과 시민의식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비군의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국방위에서 활동한 지난 10년 동안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예비군의 현대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1968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온 예비군 여러분께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방강국,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예비군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 규 백

